

1/8/23

설교 제목: 재건되는 성전에 임할 하나님의 영광

전하는 이: 김순배 목사

말씀: 학개 2 장 1-23 절

- (학 2:1) 일곱째 달 곧 그 달 이십일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 (학 2:2)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절관주** 학 1:1
- (학 2:3) 너희 가운데에 남아 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절관주** 스 3:12, 속 4:10
- (학 2:4)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이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 (학 2:5)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절관주** 출 29:45
- (학 2:6)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절관주** 히 12:26, 율 3:16
- (학 2:7)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절관주** 시 24:7
- (학 2:8)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 (학 2:9)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  
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 (학 2:10) ○다리오 왕 제이년 아홉째 달 이십사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절관주** 학 2:1, 학 2:20
- (학 2:11)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절관주** 신 17:8-11, 말 2:7
- (학 2:12)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찢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으매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절관주** 출 29:37, 레 6:27

- (학 2:13)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절관주** 레 22:6, 민 19:22
- (학 2:14)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와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절관주** 단 1:15
- (학 2:15)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와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 (학 2:16) 그 때에는 이십 고르 곡식 더미에 이른즉 십 고르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오십 고르를 길으려 이른즉 이십 고르뿐이었었느니라
- (학 2:17)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깜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 (학 2:18)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이십사일 곧 여호와와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절관주** 슥 8:9, 스 5:1, 스 5:2
- (학 2:19)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 (학 2:20) ○그 달 이십사일에 여호와와 말씀이 다시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 (학 2:21)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절관주** 학 2:6
- (학 2:22)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엮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 자를 엮드러뜨리리니 말과 그 탄 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엮드러지리라 **절관주** 단 2:44, 겔 26:16, 미 5:10
- (학 2:23)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와 말이니라 하시니라

학개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메세지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동하여 중단했던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힘을 합쳐 열성적으로 공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곧 낙심하여 의욕을 잃게 되었습니다.

백성들 중 예전 솔로몬 성전의 영광스런 모습을 기억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지어지는 성전을 보고 실망을 하면서 그 실망감이 공동체 안으로 퍼지게 된 것입니다.

재건되는 성전이 예전의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규모가 작았고 초라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학개 선지자를 통해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록 그들의 눈에는 보잘 것 없어 보이는 성전이지만 그 안에 당신의 임재 곧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것이라는 확신을 주십니다.

그리고 나아가 솔로몬 성전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지금 짓고 있는 성전에 임하게 될 것을 말씀하심으로써 성전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예언하십니다.

하나님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 짓고 있는 성전에 대한 실망감으로 낙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세지를 주십니다.

본문은 성전을 지으라고 명하신 첫 메세지에 이어 후속으로 주신 세 번의 메세지를 담고 있습니다. 학개 선지자는 이 세 번의 메세지를 받은 날짜와 함께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전 재건이 시작된지 한 달이 채 못된 다리오 왕 2년 7월 21일, 학개 선지자에게 두 번째 메세지를 주십니다.

학개 선지자가 첫 메세지를 받은지 50일만입니다.

첫 메세지는 6월 1일에 받았고 성전 재건은 6월 24일에 시작했습니다.

(학 2:1) 일곱째 달 곧 그 달 이십일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우리는 7월 21일이라는 날짜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날은 15일부터 7일 동안 거행된 초막절 (장막절) 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레 23:33)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 23:34)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열닷셋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초막절이 무슨 절기입니까?

한 해의 수확을 마치고 그 수확을 거두어 창고에 쌓으며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초막절에게는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번 초막절을 맞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기쁨과 감사가 없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가슴 한켠에 허전함과 쓸쓸함, 그리고 실망감이 자리했습니다.

수확이 빈약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 성전이 초막절에 웅장하고 화려하게 봉헌되었던 것을 생생하게 기억하는 이들이 초라하게 지어지고 있는 지금의 성전을 바라보며 실망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온 공동체가 성전 재건에 대한 의욕을 잃었고 공동체 전체의 분위기는 가라앉았습니다.

이러한 백성들의 마음을 모르실 리 없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 초막절에 모인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낙심한 그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심으로 보듬으십니다.

(학 2:2)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학 2:3) 너희 가운데에 남아 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학 2:4)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이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학 2:5)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하나님은 지도자인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리고 백성들을 향해 "스스로 굳세게 할지이다"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고 하십니다.

모세와의 언약을 상기시키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격려하십니다.

그리고는 말미마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를 반복하심으로 당신이 한 말씀을 강력하게 보증하여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성전을 비교하고 실망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이 간과한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성전의 본질에 관해서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하시기 위해 이땅에 오셔서 머무시는 하나님의 처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따라서 성전은 규모나 화려함 같은 외형적인 것으로만 판단되어서는 안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실을 잊은채 외형적인 모습만을 가지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은 이 성전에 임할 영광 곧 그리스도의 도래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학 2:6) 만군의 여호와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학 2:7)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학 2:8)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학 2:9)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 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는 마지막 날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는 하나님의 주권 선포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것에 대한 주권을 선포하심으로써 궁핍함과 곤고함, 실망감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시는 동시에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주권을 행사하실 것임을 시사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성전에 평강을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종말에 이루어질 메시아 시대를 말합니다.

성전 건축을 재개한지 3개월이 지난 다리오 왕 2년 9월 24일 하나님은 학개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번째 메세지를 주십니다.

(학 2:10) 다리오 왕 제이년 아홉째 달 이십사일에 여호와와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하나님은 세 번째 메세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만연한 부정함을 다루십니다.

하나님은 학개 선지자로 하여금 제사장들에게 두 가지 제의적인 질문을 던지시고 대답하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스스로 자신들의 영적인 실상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을 수 밖에 없었던 이유를 알게 하십니다.  
그들이 아무리 수고하여도 열매를 얻지 못했던 이유를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학개 선지자를 통해 제사장들에게 율법에 대해 두 가지를 묻습니다

(학 2:11)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학 2:12)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찢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으매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학 2:13)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학 2:14)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거룩과 부정에 관해서입니다.

'여기서 '거룩한 고기'는 하나님께 드리진 희생 제물 곧 성물을 가리킵니다.

성물과 접촉된 사람이나 옷자락에 접촉되었다고 그것이 거룩해지지 않지만, 부정하게 된 사람이 접촉하게 되는 모든 것은 다 부정해진다는 것입니다.

거룩은 다른 것에 옮겨지지 않지만 부정은 옮겨진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보다 자신들의 집을 짓는 일에 빨랐으며 하나님의 안위와 평안보다 자신들의 안위와 평안에 우선 순위를 두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마음이 이미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났다는 것은 그들이 이미 죄로 인해 부정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마음이 떠난 상태로, 죄로 인하여 부정한 상태가 되어 형식만을 갖추어 드리는 희생 제사는 부정하다는 의미입니다.

(롬 14:23) 믿음으로 좇아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을 재건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상태에 있었던 과거와 현재 이후의 삶은 완전히 다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신의 안위와 평안을 추구했던 과거에는 죄때문에 아무리 수고해도 열매를 얻지 못했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학 2:15)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학 2:16) 그 때에는 이십 고르 곡식 더미에 이른즉 십 고르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오십 고르를  
길으려 이른즉 이십 고르뿐이었었느니라

(학 2:17)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학 2:18)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이십사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학 2:19)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은 성전을 재건하기 전의 삶을 회고해 보라고 하십니다.

삶의 우선 순위를 바꾸어 살았던 그들의 삶은 아무리 애를 써도 늘 부족하고 만족하지 못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여 성전 재건을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를 거두고 복을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의 잘못된 우선 순위를 바로 잡자 당장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불순종의 결과는 저주, 순종의 결과는 복이라는 사실을 체험하게 함으로써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의 하나님인 당신께로 돌이키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 네 번째 메세지를 주십니다.

세 번째 메세지와 같은 날인 다리오 왕 2년 9월 24일에 임했습니다.

세 번째 메세지가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주셨던 반면 이 메세지는 오직 총독 스룹바벨에게 주셨습니다.

(학 2:20) 그 달 이십사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학 2:21)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학 2:22)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엮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 자를 엮드러뜨리리니 말과 그 탄 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엮드러지리라  
이것은 마지막 때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을 시사합니다.

하나님은 스룹바벨을 왕실의 권위와 소유권을 증명하는 여호와의 인장 반지로 삼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학 2:23)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이 말씀은 은혜로운 반전입니다.

하나님은 남유다의 죄가 만연한 고로 남유다 왕 여호와 긴 (고니야) 에게서 하나님의 인장 반지를 빼셨습니다.

(렘 22:24)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유다 왕 여호야קים의 아들 고니야가 나의  
오른손의 인장 반지라 할지라도 내가 빼어

(렘 22:25) 네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네가 두려워하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갈대아인의 손에 줄 것이라

그런데 여호와 긴의 손자로서 다윗의 왕위를 이을 적손인 스룹바벨을 세우시고 당신의 인장으로 삼으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다윗 왕위를 이을 적손인 스룹바벨이 바벨론으로 인한 멸망과 포로 생활로 말미암아 단절되었던 다윗 왕권을 계승하는 것입니다.

스룹바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미래의 영원한 다윗 왕권, 곧 하나님 나라를 완성할 메시아를 예표합니다.

하나님은 스룹바벨로 예표된 메시아를 통해서 다윗의 왕권, 곧 하나님의 나라가 굳건하게 세워질 것을 예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열국은 하나님의 종말론적 심판을 통해서 완전히 멸망당할 것이나 메시아를 통한 다윗 왕권, 곧 하나님의 나라는 도리어 굳게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말고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라고 하시며 부정하는 것은 옮겨지니 기록하라고 하십니다.

삶의 우선 순위를 바로 잡으라고 하십니다.

2023년 새해를 맞이하며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고 잘못된 삶의 우선 순위를 바로 잡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을 재건하기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전에는 아무리 일을 하고 애를 써도 늘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이후의 삶은 달랐습니다.

그들의 삶의 우선 순위가 바뀌자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입니다.

불순종은 저주, 순종은 복입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셔서 우리가 돌이키기만을 학수고대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결단을 보시고 당장부터 복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클 것입니다.

궁극적인 복은 메시아로 인해 얻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